

## 시·도, 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증액 마지막 기회”

본회의 불발...10일까지 여야 협상 시, AI 2단계 사업 등 예산 미반영도, SOC 등 64건 3천억 증액 요청 “국회 예의주시 막판까지 총력전”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조정된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감액됐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본회의 처리 불발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막판까지 예산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 기간이 추가로 확보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에서는 마지막 국회 증액 가능성이 열렸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 예산안 중 주요 7개 사업과 관련해 3345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410억원만 반영했다. 광주시는 남은 기간 1935억원을 증액 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7개 사업 중 광주시의 요청안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5개다.

광주시는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과 관련 내년 국비 957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나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자동차 부품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의 경우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미래자동차 인지 부품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 사업 25억원, 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 200억원, 수직이착륙기 비행 안전성실증시험지원센터 구축 사업 13억원 등도 책정되지 않았다.

다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단계 공사 준공에 필요한 2114억원을 요청했으나 1399억원만 반영됐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32억원 중 1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광주시는 예산안 상정이 연기된 일주일 동안 국회와 정부청사를 방문해 1935억원 증액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시급한 사업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7개 핵심사업은 광주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만큼 꼭 증액을 해야 한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했으나, 9조원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총 64건의 사업, 최소 3000억원 이상의 국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의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 2000억 이상 △국립 김산읍 진흥원 건립 용역비 2억 △K-디즈니 조성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 154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20억원 △인공지능(AI)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용역 3억원 등이다. **2면에 계속**

노병하·오지현 기자

알립니다

### 전남일보와 함께 활인재를 찾습니다

제37기 수습·경력기자 및 영상제작자 공채

모집부문 수습 및 경력기자 0명, 영상제작자 0명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논술) \*수습기자 지원자만 해당

3차 면접

지원자격 학력·전공·나이 및 성별에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자: 언론사 경력 2년 이상

- 영상제작자: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가능자

관련전공자 우대 \*경력 무관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년 12월 20일(금) 13시까지

\*접수처 E-mail : recruit@jnibo.com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 대상자 개별 통보 \*영상제작자는 당일 별도 테스트 진행

합격자발표 : 개별 통보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본사 소정 양식, 전남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3건 이상

영상제작자는 포트폴리오 첨부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일보 경영본부(062-510-0421)로 연락바랍니다.



서구 자원봉사자대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승희 광주시자원봉사센터 9대 이사장과 봉사자 등이 3일 서구 들불홀에서 열린 '2024 서구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후 서로를 격려하며 새출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행사 연다

10일 밤 현지 시상식 맞춰 시청서 시민 편지 쓰기·강연·공연 등 다채

광주시에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오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연다.

행사는 10일 오후 8시 문학평론가 신형철 서울대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후 10시부터 열리는 1부 행사에서는 시낭송과 시극을 통해 문학인의 밤을 수놓는다. 2부 행사에서는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탄생한 '한강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재즈사운드 뮤직그룹 '솔뮤직컴퍼니'의 공연과 주홍 작가의 샌드아트 선보인다.

광주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편지쓰기는 노벨상 시상식과 함께 11일 자정에 시작된다. 시민들의 편지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한강 작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AI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인 '문재학 열사'를 만나 볼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bo.com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